

[논어한글쓰기_13] 신군어의

(有	子	曰)	信	近	於	義	,	言	可	復	也	.
恭	近	於	禮	,	遠	恥	辱	也	.	因	不	失	其	親
,	亦	可	宗	也	.									

약	속	이	의	에	가	까	우	면	,	그	말	은		
실	천	할	수	있	다	.	공	손	함	이	여	에		
가	까	우	면	,	치	욕	을	멀	리	할	수	있		
다	.	친	한	사	람	을	잃	지	않	는	다	면		
,	또	한	종	주	로	삼	을	수	있	다	.			